

## 공공임대주택 1만호 차질 불가피

내년까지 국민임대 3000호·행복주택 7000호 목표  
 행복주택 1860호... 5000호 추가 건설 불가능 할듯  
 3000여세대 공급 위해 제주도·서귀포시 택지개발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 건설·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8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2018-2027년)'을 확정하고 변화된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까지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매입임대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포함해 약 7만4000~10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2022년까지 국민임대 3000호와 행복주택 7000호를 공급할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달 현재 공급이 확정된 도내 공공임대주택은 총 6710세대로, 2022년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3300여 세대를 추가로 공급해야 한다.

현재 도심 자투리 땅과 도유지를 활용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대규모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자치도는 이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 지역에 각 각 1개씩 신규 택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도내 도시개발에 의한 택지공급은 지난 1954년 시작돼 제주시 노형도시개발 2지구(2012년)와 2014년 아라택지개발(2014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됐으며, 그동안 총 42개 지구가 개발됐다.

신규 택지는 2017년 소규모 택지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제시된 택지개발 후보지 14곳 중 2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토지의 수용성이 수월한 곳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당시 택지개발 후보지로 제주시 동지역 2곳과 읍·면지역 5곳, 서귀포시 동지역 2곳과 읍·면지역 5곳이 제시됐다.

도내 공공임대주택 6710세대 가운

가 완료된 공공임대주택은 14개 지구 3235세대 ▷지구지정은 2개 지구(김녕지구 887세대·동부공원 882세대) 1769세대 ▷매입임대는 920세대이다.

이중 행복주택은 목표 7000호(세대)에 약 20%정도인 1860세대에 그치고 있어 목표 달성이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타당성 용

역을 통해 부지를 선정하다 보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공공택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제시된 택지개발 후보지 가운데 도심권에 가까운 곳을 선정할 예정"이라며 "올해내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택지 선정 작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대로그자 bigroad@ihalla.com

## “코로나로 지친 그대 사려니숲으로 오세요”

4~6일 에코힐링체험... 물찾으름 한시적 개방

신록의 계절 6월, '명품숲' 사려니숲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제주도민과 탐방객을 힐링의 시간으로 초대한다.

>>관련기사 7면

'2021 제주산림문화체험 사려니숲 에코힐링체험' 행사가 4일 서귀포시 표선면 남조로변에 위치한 사려니숲길 붉은오름 입구에서 개막해 6일까지 3일간의 일정을 이어간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산림문화체험 사려니숲길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신록의 숲길을 걸으면서 현대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자리로써 올해 13회를 맞는다.

5, 6일 공연장에서 각각 '이소(with 강혜인)'와 '더로그'가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1일 2회씩 숲속 무대에 오른다. 또 무장애나눔길에서는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숲속 힐링 명상이 마련된다. 참가자는 해당 20명 이내로 선착순이다. 여기에 부대행사로 사려니숲 생태사진전과 사진공모전이 진행되고 시상도 있다.

탐방은 남조로변 붉은오름 입구(1118번 도로)와 절물휴양림 인근의 비자림로(1112번 도로) 사려니숲길 입구에서 출발하는 코스에서 이뤄진다. 사려니숲길-성판악을 잇는 코스는 행사기간에만 한시적으로 탐방할 수 있다.

또한 사려니숲 에코힐링의 하이라이프인 물찾으름 탐방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예약자에 한해 허용된다.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30분 사이에 30분 간격으로 1일 6회 진행된다. 다만 현재 사전예약은 마무리 된 상태다.

주최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개막식, 전문가 탐방, 사려니숲삼거리-사려니오름 구간 개방을 비롯해 셔틀버스 운행을 하지 않는다"며 "코로나19 예방에 따른 꼼꼼한 방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신성한 곳을 의미하는 사려니숲은 유네스코가 2002년 지정한 제주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명품숲이다. 백광탁기자

## “도민·유관기관과 함께 저출산 위기 극복”

도, 출산·양육 친화 표어 등 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부터 21일까지 저출산 극복 사회 연대회의 및 인구보존복지협의회 제주지회와 공동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출산·양육 친화 표어·포스터'를 공모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초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도민, 유관기관 등과 힘을 합쳐 저출산 극복 홍보 강화 및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2018년 제주지역 합계출산율이 초저출산 상태인 1.3명 미만

으로 진입한 후 2020년에는 1.02명까지 감소하는 등 인구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모 주제는 출산·양육 친화 사회 조성을 위한 전 분야다. 참가 신청은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네이버 카페 맘맘맘 제주(https://cafe.naver.com/mamamammamjeju) 공지사항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bird5462@naver.com)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포스터와 표어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7월 1일 수상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대해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3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제주유치를 위한 '제주 COP28 유치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범국민적 참여와 민·관 협력을 통해 유치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강희민기자

## 기후변화총회 유치 속도... 컨트롤타워 출범

### 어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서 유치위원회 발족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8) 제주 유치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COP28 제주 유치를 위한 '제주 COP28 유치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

제주 COP28 유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송재호·오영훈·위성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제주자치도의회, 산업계, 학계·교육계, 언론계, 사회·환경단체, 문화관광, 방역

보건, 기후환경·국제교류 전문가, 미래세대(청년·학생) 등 81명으로 구성됐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좌남수 제주도 의회의장, 제주출신 배우 고두심씨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유치위원회는 COP28 제주 유치를 위한 범국민적 참여와 민·관 협력을 통해 제주의 유치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9월 '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에서 COP28

제주 유치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COP28 유치 실무 TF를 구성했다. 또 제주도민을 비롯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제주 유치 지지를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COP28은 매년 197개 당사국 정부대표단, 국제기구·민간단체 대표, 전문가 등 약 2만명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관련 가장 큰 규모의 국제회의로, 2023년에는 대륙별 순회 원칙에 따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강대해기자 dhkang@ihalla.com

제주 코로나19 누적 확진 1085  
 3일 18시 기준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2021 제주산림문화체험 사려니숲 에코힐링체험 개최를 축하합니다



함께하는 100년 농협

마늘수확 일손돕기에 적극 참여해 주신  
**해병대 장병** 및 **도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제주농협 임직원 일동 -

